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5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월 3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5. 3(목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김영만 과장(02-734-1864)	담 당 자	박성희 사무관(02-734-1870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제22차 공식협상 개최

- 5.4(금) ~ 8(화) 싱가포르 -

□ **'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' 제22차 공식협상**이 **5. 4.(금)부터 5. 8.(화)**까지 **싱가포르**에서 열린다.

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메가 FTA
- 지난 '13.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이번 협상이 제22차 협상

○ 우리는 **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(FTA)정책관을 수석대표**로, **산업부 및 관계부처**를 포함해 **약 70명**의 대표단이 참석한다.

□ **'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'**참여국은 **지난 3월 싱가폴 '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**에서 올해 **타결 의지를 재확인**하고 핵심 쟁점별로 **이행안(로드맵)을 도출**하였으며,

○ 이번 협상에서는 **수석대표회의**를 비롯해 **상품·서비스·투자** 등 시장접근과 **원산지·통관·지재권 등 규범** 분야에 걸쳐 **총 14개 작업반 회의**를 개최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□ **'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'은**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자 **신남방(新南方) 정책의 핵심거점**인 **아세안·인도 등이 모두 참여**하고 있는 협상으로써,

○ 협상이 타결되면, 우리기업의 **대(對) 아세안 및 인도 시장개방 확대**는 물론, 통관·원산지 등 분야 통일규범 마련을 통한 **역내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는 각 분야별로 **유연성을 바탕으로** 협상의 진전에 적극 기여하고 **우리 핵심이익은 반드시 관철**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(☎ 02-734-1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RCEP 협상 경과 및 의의**

1. 협상 경과

□ 2012. 11. 20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계기 **RCEP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 5월 협상개시 후 **21차례 공식협상** 및 **10차례 장관회의** 개최

□ 2017. 11. 14 RCEP 정상회의에서 **2018년 타결목표** 설정

2. 협상구조

RCEP 장관회의 (RCEP Ministerial Meeting)	수석대표회의(TNC) 합의사항 추인 및 주요 결정사항 논의를 통해 RCEP 협상의 모멘텀 부여 * 아세안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
수석대표회의 (**TNC** : Trade Negotiating Committee)	주요 결정사항 논의, 각 작업반에 지침 제시, 각 작업반은 회의 종료 후 TNC에 결과 보고
작업반(9) 및 소작업반(7) (Working(Sub-working) Groups)	**(작업반)** 상품, 서비스, 투자, 지식재산권, 법률제도, 전자상거래, 정부조달, 경제기술협력, 경쟁 **(상품 소작업반)** 무역구제, 원산지, 통관, SPS, STRACAP (=TBT) **(서비스 소작업반)** 금융, 통신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3. 의의 및 기대효과

□ **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*을 차지**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·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RCEP 對세계비중: GDP 23.8조불(32%), 인구 35억명(50%), 교역 9.6조불(29%) ('16년 IMF)

□ 상대적으로 **경제성장률*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** 미래 유망시장**

* '16년 성장률(IMF): 中 6.7% / 印 6.6% / 베트남 6.2% vs 美 1.6% / 유로존 1.7%
** 중위연령('17, UN): 인도 26.7세, ASEAN 29.2세 vs 한국 40.8세 일본 46.3세, 미국 37.6세

□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**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

◈ RCEP 체결시 **경제적 기대효과**('12, KIEP)
- **(실질 GDP)** 10년간 **1.21~1.76%** 증가, **(소비자 후생)** 10년간 **113.51~194.56억 달러** 증대